

OFF



프로야구 멈춤

〈2021. 7. 13 ~ 8. 9〉

두산·NC서 잇따라 확진자 발생 구단 운영 파행 도쿄 올림픽까지 휴식 돌입 ... 형평성 논란 일 듯

KIA, 비상 상황에도 원칙 지켜

KBO가 스스로 원칙을 깬다. '형평성' 논란은 시즌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KBO가 12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3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리그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13-18일 예정됐던 경기가 취소된다. 이 경기들은 추후 편성된다. 오는 19일부터는 도쿄 올림픽 휴식에 돌입 8월 9일까지 리그가 멈춘다.

KBO는 지난 7일 변화된 방역 상황에 맞춰 2021 KBO 리그 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 개정판을 발표했다.

개정판의 코로나19 상황 발생 시 리그 비상 대응 지침에는 '구단 내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선수) 인원수와 상관없이 구단 대체 선수들을 투입하여 리그 일정을 정상 진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2명의 확진자가 나온 두산 그리고 3명이 확진된 NC는 2군 대체 선수를 활용해 리그에 참가하면 된다.

선수단 전원이 자가격리 상태지만 앞서 올림픽 예비 엔트리에 포함됐던 선수는 화이자 백신 1, 2차 접종을 마친 만큼 이들은 능동감시자로 리그에 참가할 수도 있다.

물론 엔트리 등록 미달 등 구단 운영이 불가하거나 리그 정상 진행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실행위원회 및 이사회 요청을 통해 리그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는 항목이 있는 만큼 리그 중단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의 진원지가 된 두산과 NC는 엔트리 등록 미달과 구단 운영 불가의 상황은 아니다.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KIA는 지난 11일 '원칙대로' 비상상황에서 경기를 풀어갔다.

내부 코로나 확진이 아닌 '두산발' 밀접접촉자 발생으로 경기 개시 직전 부랴부랴 휴식일을 보내고 있던 이정훈이 풀렸고,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루키가 선발로 마스크를 쓰고 예상치 못한 프로데뷔전을 치렀다.

지난주 두 차례나 갑작스러운 코로나19 경기 취소로 경험한 KIA는 이날은 경기 지연 상황까지 겪으면서 혼돈의 1주일을 보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KIA는 원칙대로 최선을 다해 그라운드에 올랐고, 1위 KT를 상대로 6연승을 완성했다.

하지만 승리에도 마냥 웃을 수는 없었다. 경기가 끝난 후 문제의 두산전에서 1루수로 나섰던 선수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묵묵히 매뉴얼 대로 시즌을 보냈던 KIA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KBO는 지난 6월에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KBO 리그 위기 극복 요청서'를 정부에 제출하면서 "코로나 19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많은 국민들의 활력 충전 등을 위해 관람 인원 비율 확대, 취식 허용 등 방역 정책을 완화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을 위한 프로야구를 언급하며 리그 진행과 관중 확대에 자신감을 보였던 KBO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새로운 매뉴얼을 발표했다. 리그 일정 정상 진행을 우선으로 언급했지만, 이 원칙도 깨면서 리그 중단을 결정했다.

방역 수칙 위반 논란 속 리그에 코로나 사태를 불러온 NC와 두산은 침묵 속에 잇속만 챙겼다.

지난 6월 28일 KT 코치, 두산 전력분석원이 먼저 확진자가 되면서 한 차례 KBO는 경기 취소 소동을 겪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불거졌다.

새로운 매뉴얼을 공표하고 방역수칙 강화 등을 언급했던 KBO지만 결국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하고, 원칙까지 뒤집었다.

내부의 안일함도 사태를 키웠다.

KIA는 지난 4일 두산전을 통해서 두 명의 선수가 밀접접촉자가 되면서 자가격리 신세가 됐다. 앞서 전력분석원 확진이라는 악재도 있었지만, 두산의 인식은 안일했다.

문제가 됐던 광주 원정에서 두산의 한 직원은 다른 이들이 있는 장소에서 "끝나고 나서 술을 먹고 들어 가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선수단과 접촉하는 직원이지만, 며칠 전 팀 내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발언이었다.

그리고 KIA는 1주일 만에 '두산발 코로나'에 경기 취소, 자가격리라는 상황을 겪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도치 않은,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해도 두산 내부의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엿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다.

리그 중단을 발표한 KBO는 '코로나 19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면서 '순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휴식이 이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 또 다른 코로나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 이미 원칙을 깬 만큼 '형평성' 논란 속에 정상적인 리그 진행과 완주가 어려울 수도 있다.

2020시즌 코로나 시국 속 '희망'이 됐던 KBO는 원칙과 신뢰를 깨고 스스로 권위를 낮췄다. 리그 중단은 결정됐다. 팬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살펴미어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게 KBO의 시급한 과제가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탈리아, 53년 만에 유로 우승

골키퍼 돈나룸마 눈부신 선방 승부차기에서 잉글랜드 꺾어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가 '축구 종가' 잉글랜드를 적전에서 꺾고 53년 만에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정상에 탈환했다.

이탈리아는 12일 영국 런던의 '축구 성지' 웹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 결승에서 연장전까지 120분 동안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승부차기에서 잉글랜드를 3-2로 제압했다. 이로써 이탈리아는 자국에서 열렸던 1968년 대회 이후 무려 53년 만에 유럽 축구 정상에 우뚝 섰다.

2000년대 들어 2차례(2000년·2012년)나 결승에 진출하고도 준우승에 그쳤던 이탈리아는 2년 3기 만에 다시 유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60년 만에 경험했던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의 아픔도 이번 우승으로 보기에 좋게 씻어냈다. 이탈리아는 또 34경기 연속 무패(27승 7무) 행진을 이어갔다.

반면 이제 1회 대회가 열린 1960년 이후 61년 만에 대회 결승에 오른 잉글랜드는 홈에서 이탈리아의 벽에 막혀 유로 첫 우승을 이루지 못했다.

대회 MVP(최우수선수상) 격인 '플레이어 오브 더 토너먼트'로는 이탈리아 골키퍼 잔루이지 돈나룸마가 선정됐다.

1996년 대회부터 시상한 이 상을 골키퍼가 받은 것은 돈나룸마가 처음이다. 돈나룸마는 이탈리아가 조별리그 무실점을 포함해 총 4실점 잔물수비

를 펼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 5골씩을 넣은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체코의 파트리크 시크가 공동 득점왕에 올랐다.

잉글랜드가 전반 2분, 킥오프 1분 57초 만에 터진 루크 쇼의 선제골로 앞서나갔다.

카이런 트리피어가 오른쪽에서 올린 대각선 크로스를 쇼가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해 골문을 갈랐다. 이 득점은 유로 결승 역대 최단 시간에 터진 골로 기록됐다.

이탈리아는 후반 22분 동점골을 뽑아냈다.

코너킥에 이은 문전 혼전 상황에서 마르코 베라티의 헤더를 잉글랜드 골키퍼 조던 픽퍼드가 가까스로 쳐냈으나, 보누치가 재차 슈팅해 골망을 흔들었다. 기세가 오른 이탈리아가 계속 잉글랜드 진영을 몰아쳤으나 승부를 내지 못했고, 경기는 연장전으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연장전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우승컵의 주인은 승부차기에서 결정됐다.

이탈리아가 선축을 잡은 가운데 이탈리아의 2번째 키커 안드레아 벨로티의 슈트 픽퍼드에게 막혔다. 그러나 잉글랜드의 3번째 키커 마커스 래시퍼드가 실축하고 4번째 키커 제이든 산초의 슈팅이 골키퍼 돈나룸마의 선방에 막혀 이탈리아가 다시 3-2로 리드를 잡았다.

래시퍼드와 산초는 개러스 사우스게이트 잉글랜드 감독이 연장전 막판 승부차기를 위해 교체 투입한 선수들이었다. 이탈리아의 5번째 키커 조르지뉴의 슈팅이 픽퍼드에게 막혔지만, 잉글랜드 마지막 키커 부카요 사카의 슈팅 역시 돈나룸마를 뚫지 못하면서 이탈리아가 우승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12일 영국 런던의 웹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에서 우승한 이탈리아 선수들이 트로피를 들고 경기장을 돌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FC에서 확진자 8명 K리그1 일정 변경 불가피

제주에 이어 성남에서 대거 확진자가 나오면서 K리그1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리그1 성남FC에서 확진자 8명이 나왔다. 11일 1군 코치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12일에 추가로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성남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고성에서 전지훈련을 치렀다.

전지훈련에서 복귀 후 선수단 중 일부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면서 검사가 진행됐고, 전지훈련에 참가한 선수단 46명 중 36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다. 하지만 선수 2명과 스태프 6명 등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성남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방역당국, 지자체 및 연맹과의 협력 및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더 이상의 확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공지문을 올렸다.

대거 확진자가 나오면서 선수단 자가격리가 불가피한 만큼 K리그1 경기 일정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성남은 코로나19 때문에 앞서 14-17라운드 일정에도 차질을 빚었다. 당시에는 맞대결을 했던 FC 서울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한편 지난 6일에는 K리그1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선수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2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예정됐던 FC서울과의 경기가 연기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